



고마워!

은월초 6-2 송유정

“야, 하은이 개 줌... 썰하지 않아?”

하은이에 대한 소문이 생긴 건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나다.

일주일 전, 하은이와 나는 정말 친한 친구였었다. 처음에는 단들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비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사이였는데... 하지만 하은이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했다. 버스카드 한 번 내주니 계속 내달라고 떼쓰고 돈도 제때제때 갚지 않고 나한테는 장난이라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니까, 친구니까’하는 마음으로 참았다.

근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 더 참으면 내가 터져버릴까 싶어 다른 친구에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맞장구를 쳐주며 나를 공감해 주었다. 너 무나도 신나버린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호응하고 공감해 주니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는 하은이뿐이었다. 하은이에게 이 불만을 말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나는 이 기분이 너무 짜릿해 하은이와 계속 같이 다니며 뒷담할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점점 과장해서 풍선처럼 조금씩 부풀려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덩석 믿은 아이들은 점점 하은이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은이는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들은 은근히 하은이를 무시하고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은이는 우리 반의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

한편으론 내가 시작했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너무 착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애한테 너무 하다고 하니!”

왜 나는 그런 말을 듣고 하은이가 저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착하다고 착각했을까? 너무 후회된다. 어느 순간 계속 하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하은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은이가 나한테 한 이기적인 짓들을 하은이에게 되갚아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를 위해 하은이에게 저렇게 해주니 정말 통쾌하고 마음이 통하는 다른 친구들을 만난 듯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하은이가 나에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지? 때리고, 돈을 뺏어가고 더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말려야 된다. 친구들에게 말하자.

“야, 하은이한테 그만해. 재도 너무 힘들겠다.”

“엥? 네가 먼저 우리한테 재 뒷담 까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럼? 너만 착한 척하지 마.”

아, 재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반에 나를 위한 진정한 친구는 ‘없다’. 그렇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 하은이가 재미없으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나는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더, 더, 심하게 하은이를 괴롭혔다. 다음 표적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아 남으려면 재를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나는 하은이를 죽이며 동시에 나도 나를 같이 죽이고 있었다. 밤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뜬눈으로 지새우며 보냈다. 점점 나는 그 친구들의 사냥개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누군가와 울며 통화하고 있었다. 내용은 자기가 학폭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 큰일 났다. 내 인생에 빨간 줄 생기겠다.’

두려웠다.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신 것처럼 가슴이 쿵쥔대고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너도 하은이 괴롭혔니?”

“네? 제가요?”

“하은이가 너네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학폭 신고가 들어왔어. 사실대로 말해줘.”

“네...”

긴 상담 시간이 끝난 뒤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후련했다. 너무 참고 있었던 탓일까? 그때 생각이 번쩍 들었다.

‘사과해야겠다.’

나는 당장 하은이에게 달려갔다. 역시나 하은이는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 나는 하은이의 손목을 잡고 뛰어갔다. 심장이 차분해지고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하은이에게 너무 미안했다. 혼자 있었을 하은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었을 것이 느껴졌다. 난 진짜 나쁜 사람이다. 사람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트려 버린 사람.

탁 트이는 운동장에 도착한 뒤 나와 하은이는 벤치에 앉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때 동안 내가 너한테 한 일이 전부 후회돼. 네가 나한테 막말을 해서 내가 너무 화나서 친구들한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말하고 고쳐나갔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신고해도 나는 상관없어. 정말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을게... 진짜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나는 말을 하고 울음이 터져버렸다. 그 순간 떠올랐다. 하은이가 그렇게 하긴 했어도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 진정한 ‘친구’였구나. 내가 하은이를 때렸던 차가운 손과 달리 하은이가 나를 용서해주고 달래주는 손길은 따뜻했고 구원이었다. 하은이가 말했다.

“용기 내서 사과해 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없는 동안 외로웠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나 싶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너한테는 너무 상처였다. 나도 미안해. 내 잘못도 있었는데 너만 원망해서 나도 미안해.”

하은이도 울었다. 이번에 하은이에 대한 나의 손길을 전처럼 다

시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서로의 얼굴을 본 뒤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며칠 후, 하은이와 나는 전처럼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비밀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다시 친구가 되었다. 한 번씩 내 손이 하은이의 몸에 닿으면 하은이가 움찔한다. 그때 정말 심한 죄책감이 몰려온다. 그래도,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함께 이겨 나갈 것이다. 요즘엔 하은이와 나는 속상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한다.

“날 행복하게 만들어준 내 친구 하은아, 정말 고마워!”

